

『신아시아불교사』 전15권에 대한 리뷰

김천학(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2011년 전15권의 『신아시아불교사(新アジア佛教史)』가 간행되었다. 구판이 1982년에 간행된 지 30년만이다. 『신아시아불교사』를 간행한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불교연구 환경이 격변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장경을 비롯하여 원문 텍스트가 제공되고 있다. 비문, 금석문 등의 새로운 자료의 발견, 발굴로 기존에 생각지 못한 정확하고 치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사학, 민속학, 신화학, 미술사, 문학사, 고고학, 건축학 등 불교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가 현저하게 진전됨에 따라, 종래의 문헌학적 연구방법으로부터 연구방법론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경시되기까지 했던, 의례, 제도, 여성, 민속, 문학, 건축, 사회생활 등에 대한 불교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불교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 불교는 무엇인가’ 등등의 현대인의 문제의식을 통해 『신아시아불교사』 시리즈가 탄생한 것이다.

이에 『신아시아불교사』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요 등

을 통해 각 권의 집필 의도와 목차를 소개하고, 전15권 가운데 제10권의 ‘한반도 불교’에 대해 자세히 리뷰하려고 한다. 이하 내용은 <http://www.kosei-shuppan.co.jp/ajibutsu/> 에서 발췌 또는 요약하였다. 우선, 편집 대표격인 두 연구자의 평가를 들어 본다.

나라 야스아키(奈良康明) 고마자와 대학 명예교수는 『신아시아불교사』의 특색에 대해서, 불교역사를 보는 시점을 크게 바꿨으며, 인도·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해서는 종래의 문헌학적 접근 방법을 극복했고, 일본불교사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종파 혹은 교리사를 넘어 사상·문화의 관점으로 시야를 넓혔다고 평가한다.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의 스에키 후미히코(末文美士)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종래의 삼국사관의 잘못을 극복하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한국, 베트남 등의 불교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서술방법을 벗어나 다면적이고 매력적인 불교 모습을 그려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1. 『신아시아불교사』의 구성과 내용

본서의 특징은 5가지로 소개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학을 넘어선 학제적 협동 연구를 통해 얻어진 최신의 연구성과와 새로운 관점을 통해 불교사를 풀어낸다.

둘째, 시대적 서술보다 지역과 테마를 중시하는 구성이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로부터 읽어 내려갈 수 있다.

셋째, 문화, 미술, 건축, 민속 분야 등 대중에 침투해 들어간 불교문화의 DNA를 해독하여 그 침투력의 원천을 해명한다.

넷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등을 다수 사용하였으며, 어려운 불교 용어 등에는 읽는 법을 달아 학생 및 일반 독자가 읽기 쉽게 하였다.

다섯째, 차세대를 담당할 200여명의 집필진에 의뢰했으며, 각 권의 편집위원 및 편집협력은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가 담당하였다.

여기에 두 가지 덧붙인다. 본서에는 중간 중간에 <칼럼>을 통해 해당 권에서 서술하는 불교주제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각 권에는 색인이 있어 본서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각 권의 편집 의도와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권 『인도Ⅰ: 불교 출현의 배경』(奈良康明・下田正弘 編)

[편집 의도] 불교의 성립과 발전의 기반은 인도대륙에 있다. 힌두문화를 형성하면서 그곳에서 탄생한 불교를 인도 고대의 역사, 사회, 종교의 기원, 의례, 문화 등의 제 양상에 주목하면서 불교가 세계사에 출현한 배경을 고찰하는 것이 본권의 의도이다.

[목차] 제1장. 힌두세계의 불교 / 제2장. 고대 역사와 사회 / 제3장. 종교의 기원과 전개 / 제4장. 의례와 문화의 변천 / 제5장. 문학과 종교 / 제6장. 이슬람과의 공존 / 별론. 네팔의 종교와 사회. 이 외에 ‘타밀 세계의 독자성’ 등 5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2권 『인도Ⅱ: 불교의 형성과 전개』(奈良康明・下田正弘 編)

[편집 의도] 인도불교에 대해서 1. 원시불교, 2. 부파불교, 3. 대승불교, 4. 밀교의 네 구분법에 따라 상론하였으며, 13세기 초 거의 사라졌던 인도불교가 근대에 재수용된 과정을 탐구하였다. 특히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 교수의 서문을 통해 본서의 구성 근거에 대해 숙지할 때 각 장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서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서는 세 가지 다른 관점에 의한 역사의 상위와 두 종류의 자료로부터 밝혀지는 역사의 상위를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 우선, 세

가지 다른 관점이란 첫째, 불전에 설해진 사상 및 이념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개념의 변천과정을 서술하는 역사이다. 둘째, 각 역사의 배경이 되는 사회, 제도에 눈을 돌림으로써 구성되는 사회사 혹은 제도사로서의 역사이다. 셋째, 연구자 자신의 관점 밖으로부터 투영하여 서술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상사로서의 역사이다. 본권에서는 첫째와 둘째의 관점을 중시하는 서술방식을 취했으며, 다음 권이 셋째의 서술방식을 중시한다.

두 종류의 자료라는 것은 문헌 자료와 비문헌 자료인 고고학 유물, 미술, 건축 등의 자료를 말한다. 종래의 불교연구는 문헌자료에 의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비문헌 자료에 의해 재구성되는 역사는 문헌자료에 의한 기존 해석에 의문을 던져준다. 따라서 양 자료를 충분히 조합할 수 있을 때, 입체적인 불교상이 제시될 수 있다.

[목차] 제1장. 근대불교학의 형성과 전개 / 제2장. 원시불교의 세계 / 제3장. 불교교단의 전개 / 제4장. 대승교단의 수수께끼 / 제5장. 밀교의 출현과 전개 / 제6장. 조형과 불교 / 제7장. 근대에서 현대로. 이 외에 ‘오리엔탈리즘과 인도사회’ 등 6편의 칼럼이 수록되었다.

제3권 『인도Ⅲ: 불전으로 본 불교세계』(奈良康明・下田正弘 編)

[편집 의도] 경·율·논 삼장으로 구성되는 불전(佛典)은 석가모니 시대부터 현재까지 전해진다. 그 수는 8만 4천이라고 할 정도로 방대하다. 성립연대뿐만 아니라 신앙 및 실천의 배경이 다른 각 불전의 내용을 분류하고 간결하게 해설하면서 붓다의 세계에 접근하였다.

시모다 교수의 서론에 따르면, 불전에는 ‘부처가 설한 말’과 함께 ‘부처를 표현하는 말’이 서술되어 있다. 아래 목차의 1장은 이 가운데 후자를 밝히기 위해 서술되었다. 한편, 전자의 경우, 전파지역의 확대, 시대의 진전, 편집방법의 정비와 함께 교설의 다양화, 해석의 심화, 각 설

의 통합 및 정리과정을 거쳐 정치하고 복잡한 체계로 완성된다. 아래의 2장부터 7장까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목차] 제1장. 불전으로 보는 세계 / 제2장. 초기경전과 실천 / 제3장. 율과 불교사회 / 제4장. 대승경전의 세계 / 제5장. 해석학의 진전 / 제6장. 사상의 심화 / 제7장. 의례, 상징, 텍스트 이 외에 ‘불교논리학의 미래’ 등 5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4권 『스리랑카·동남아시아: 동(動)과 정(靜)의 불교』(奈良康明·下田正弘 編)

[편집 의도] 스리랑카 및 동남아시아 대륙의 제 국가(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와 복수의 국가에 걸친 지역에도 눈을 돌려, 생활 속에 깃들어 있는 불교를 서술했으며, 현지조사를 거듭하여 도출된 최신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였다.

시모다 교수의 서론에 따르면, 2천 년이라는 세월을 초월하여 팔리어 불전과 계율을 계승한 승려들과 그들을 숭앙하는 신자들, 거기에는 ‘움직임(動)’의 시대에서조차 미동도 하지 않는 ‘고요함(靜)’의 세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격동이다. 격동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교의 시대, 지역, 언어, 제도 등의 상위가 다양성으로 존재한다. 본권은 두 극 ‘동’과 ‘정’에 초점을 맞추어 상좌부불교를 입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동남아시아 불교도의 세계 / 제2장. 상좌부 불교교단의 상호 지원과 교류 / 제3장. 스리랑카의 불교와 역사 / 제4장. 미얀마 불교의 전개 / 제5장. 태국의 불교세계 / 제6장.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불교 / 제7장. 중국 서남지역에서의 팔리불교 / 제8장. 불교, 민속종교, 소수민족 / 제9장. 여성과 불교사원. 이 외에 ‘밀교와 상좌부불교’ 등 5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5권 『중앙아시아: 문명·문화의 교차점』(奈良康明·石井公成 編)

[편집 의도] 동쪽은 둔황, 서쪽은 로마·아테네로 연결되는 중앙아시아의 각 지역은 현재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발굴 결과 엄청난 유적 및 문헌이 발견되었으며, 종래 단순히 불교전래의 통로로만 인식되었던 이 지역의 불교연구는 인도와 중국의 불교를 새로 쓰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서문에 따르면, 이민족, 이문화의 도가니 속에서 다양한 종교가 침투하던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지역에서 인도불교는 서민적이고 실천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불교로 변해가면서 확대되어 간다. 이 지역의 불교는 독자적 성격을 지녔으며, 그런 만큼 이 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인도불교와는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중국의 세력이 서진하면서 중국불교의 영향이 확대되어가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하다. 본권은 이러한 역사 배경 하에 국가홍망의 역사, 그리고 다종다양한 종교에 침식되면서 확실하게 존재했던 불교의 잔영들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인더스를 넘어: 불교의 중앙아시아 / 제2장. 동투르키스탄에서의 불교의 수용과 전개 / 제3장. 중앙아시아의 불교사본 / 제4장. 출토자료로 본 종교문화: 이란어권 불교를 중심으로 / 제5장. 중앙아시아의 불교미술 / 제6장. 불교신앙과 사회 / 제7장. 둔황: 문헌, 문화, 미술. 이 외에 ‘실크로드와 불교 그리고 악기’ 등 6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6권 『중국 I 남북조: 불교의 동전(東傳)과 수용』(沖本克己 編)

[편집 의도] 중화문명권의 불교는 인도 발상의 종교사상을 ‘한역(漢譯)’이라는 형태로 수용되어 동아시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한편, 역대 왕조의 통치이념인 왕법과 불법의 마찰, 그리고 유교·도교·불교의 삼교논쟁이 치열해진다. 간노히로시(菅野博史) 교수가 서문에서

‘불교의 동전과 수용’이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서서히 중국사회에 침투하여 수당시대에 제종파를 성립시킬 때까지 중국인이 불교를 배우고, 불교가 중국인의 실존적 삶에 배어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듯이, 본권은 중국 초기불교의 양상을 밝히고 있다.

[목차] 제1장. 중국의 불교 / 제2장. 불교전래 / 제3장. 동진·남북조 불교의 사상과 실천 / 제4장. 삼교의 충돌과 융합 / 제5장. 불전한역사 개요 / 제6장. 경록과 의경 / 제7장. 왕법과 불법. 이 외에 ‘유교경학과 불교의 경소’ 등 7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7권 『중국Ⅱ 수당: 홍룡·발전하는 불교』(沖本克己 編)

[편집 의도] 오키모토 카츠미 교수의 서문에 따르면, 수당시대는 인도불교가 중국적 변용을 완성하고 화려하게 공전무후의 전개를 보인 전환기이다. 그동안 오랜 분열과 항쟁의 시대, 그리고 다른 장소와 문화 가운데서 배양된 다양한 사유 형태와 실천 방법이 융합되면서 독자적 불교를 만들어간 시기이다. 인도와는 다른 민족, 언어, 풍토를 가진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그 변화양상이 격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불교사는 그런 움직임을 사상적으로 문화사적으로 정확히 파악해가는 작업이다.

오키모토 교수는 중국불교를 크게 전래기, 홍룡기, 지속기로 분류하였는데, 본권은 그 가운데 수당의 불교를 홍룡·발전기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불교의 모습들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선, 정토, 천태, 화엄, 밀교 등 현대에서 말하는 종파형성의 방향성에 주목을 하였지만, 그러한 종파의 교학은 항상 통일국가와 불교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중국 역사에 각인된 불교홍룡의 모습을 개관하였다.

[목차] 제1장. 무엇이 수당불교인가 / 제2장. 인도불교의 중국적 변용

/ 제3장. 교학불교의 양상 / 제4장. 민중불교의 계보 / 제5장. 선종의 생성과 발전 / 제6장. 밀교의 전파와 침투 / 제7장. 사대부의 불교수용.
이 외에 ‘중국의 폐불’ 등 7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8권 『중국Ⅲ 송원명청: 중국문화로서의 불교』(沖本克己 編)

[편집 의도] 송대 이후의 불교사가 송(宋)·원(元)·명(明)·청(淸), 그리고 근대불교를 하나로 엮는 서술 방식이었다면, 본권은 이와 같은 서술방식을 극복하고 송, 원, 명, 청 불교의 특징을 기술하려고 시도하였다. 서문에 따르면, 송대에는 주자학이 지도 원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침체기로 접어든 것은 아니다. 대장경의 조판이 시작되고, 각 종파의 총서가 지속적으로 개판되며, 승제가 정비되고, 오산(五山)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물과 제도는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본에 전해진다. 원대에는 지배 민족인 몽골족이 신흥했던 라마교(티벳 불교)가 국가의 지도원리가 되어 명, 청 시대까지 왕실의 비호 아래 세력을 넓힌다. 그러나 원대는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었고, 전통 불교 역시 비호 또는 억제 정책 속에서 융성의 시기를 맞이한다. 한편, 삼교의 복잡한 관계가 유지된 채로, 기독교, 이슬람교까지 포용하는 시대이기도 한다. 명대에는 전통사상에 대한 복귀가 현저히 대두되면서 불교는 냉대를 받지만, 오히려 민중불교가 발전하는 시기이다. 청대에는 불교가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현대에 들어와 모택동의 철저한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송대 이후 불교는 유교와의 사상적 융합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국가 통제 하에 명맥을 유지한다. 하지만, 도읍을 벗어난 불교의 산림수행, 무역교류를 통한 일본에의 불교전파, 민간신앙 등 왕조교체의 틈바구니에서 중국불교가 걸어온 다양한 모습을 고찰하는 것이 본권의 목표이다.

[목차] 제1장. 송대의 사상과 문화 / 제2장. 원·명의 불교 / 부론. 청초의 불교 / 제3장. 불교민간신앙의 제 양상 / 제4장. 일본과 중국의 교류사 / 제5장. 불교미술 / 제6장. 중국불교의 현재. 이 외에 ‘거사불교’ 등 6개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9권 『티벳: 수미산의 불교세계』(沖本克己 編)

[편집 의도] 티벳에는 인도후기불교가 직접 전해졌으며, 수세기 동안 티벳에 불교를 전했다. 티벳인들도 적극적으로 인도로 구법한다. 티벳에서는 타종교와의 알력도 없이 국가의 비호 아래 인도에서 직접 전한 불교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현재 티벳어로 남아 있는 불전이 다른 계통의 불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한다. 특히, 티벳불교는 썬스크리트어를 정확히 티벳어로 번역했으며, 번역어의 통일성도 기했다.

후쿠다 요이치(福田洋一) 교수는 서문에서 티벳불교를 보편성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보편성이란 인도 불교 바로 그것이라는 데에 있다. 근년의 달라이라마 14세는 티벳불교의 특수성을 구현한 인물이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티벳을 구제하기 위해 환생한다는 사유는 인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수하다. 하지만, 달라이라마 그는 불교의 가치관에 기반을 둔 인간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티벳불교의 특수성은 불교가 티벳라는 특수한 환경에 변용하지 않고, 오히려 티벳이 불교에 의해 변용되었다는 데 있다. 티벳의 역사는 불교의 역사이다. 정치가도 불교사상 가운데서 행동하며, 방대한 문헌, 음악, 미술 등이 불교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다.

4,000미터 고원에서 성립한 수미산의 불교세계를 형성한 관세음보살이 수호하는 나라, 티벳의 역사는 인도의 정통불교 사상을 수입하면

서 방대하고 정치한 밀교의 수행체계를 확립하는 역사이다. 4대 종파의 사상철학으로부터 달라이라마 14세의 평화활동에 이르기까지 티벳 불교의 진실을 모든 각도로부터 상론하였는데, 본권의 의도는 이러한 논의가 과거의 티벳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티벳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데 있다.

[목차] 제1장. 고대 왕조시대의 제상 / 제2장. 후대 전래불교의 제상 / 제3장. 종파개설 / 제4장. 티벳불교의 현재 / 제5장. 티벳의 미술 / 제6장. 문화: 현대 티벳 불교의 제 양상 / 별론. 달라이라마 14세. 이 외에 '티벳 의학' 등 5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10권 『한반도·베트남: 한자문화권으로의 확장』(石井公成 編)

[편집 의도] 한반도와 베트남에의 불교 수용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소개하면서, 주제에도 염두를 두었다. 또한 중국과 주변제국의 불교를 통해 활발했던 교류사와 상호관계를 서술하였다. (본권에 대해서는 후에 상론함)

[목차] 제1장. 불교수용과 민간신앙 / 제2장. 통일신라시대 불교 / 제3장. 고려대장경의 배경 / 제4장. 조선시대 불교 / 제5장. 한국근대불교 근대화와 독립의 길 / 제6장. 한반도의 불교미술 / 제7장. 베트남 불교. 이 외에 '한국의 고전문학과 불교' 등 7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11권 『일본 I: 일본불교의 기초』(末本文美土 編)

[편집 의도] 패전 후 일본의 불교사는 가마쿠라 불교사관에 의해 특징지을 수 있다. 즉 가마쿠라 시대에 새로운 종파를 개창한 신란(親鸞) 등의 조사를 정점으로 하는 불교사이다. 이들 신불교에 의해 구불교가 극복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5년에 구로다토시오(黒田俊雄) 교수가 발표한 '현밀체제론(顯密體制論)'에 의해 이와 같은 불교관이 뒤집

어졌다. 즉, 현밀불교라고 하는 구불교가 여전히 세력의 중심이었고, 신불교는 이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나온 이후 비판도 만만치 않지만, 일본불교의 연구는 신불교에만 집중되지 않고, 구불교의 사회활동, 밀교의례, 신불습합 등이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나아가 중세불교를 정점으로 하는 불교사관도 바뀌어 고대, 중세, 근세, 근대 등 각 시대 불교의 독창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본권은 크게 바뀐 일본불교사관을 축으로 고대불교부터 중세불교의 맥아까지 다루고 있다. 불교의 전래는 사상뿐 아니라 건축,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일본문화를 크게 개화시켰다. 이러한 면을 밝히기 위해 일본불교의 기초를 다진 불교전래부터 남도불교, 헤이안불교의 전개에 대해 다각적으로 심층까지 논하였다.

[목차] 제1장. 불교의 전래와 유통 / 제2장. 나라불교의 전개 / 제3장. 사이초(最澄)·구카이(空海)의 개혁 / 제4장. 불교의 일본화 / 제5장. 신불습합의 형성 / 제6장. 인세이기(院政期) 불교의 전개 / 별론. 여성과 불교. 이 외에 ‘사리신앙’ 등 7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12권 『일본Ⅱ: 약동하는 중세불교』(末木文美士 編)

[편집 의도]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신불교 등장은 중세불교의 막을 열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밀체제론 발표 이후 신불교로부터 구불교 연구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었다. 본권은 이러한 새로운 불교사관에 입각하여, 구불교 사원 세력 및 구불교 개혁에 주목하였고, 불교의 사회활동의 서술 등을 통해 사회 변화상을 도입하였으며, 문학과 도시론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접근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관점에서의 불교사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현밀불교의 전개 / 제2장. 신불교의 형성 / 제3장. 불교가의 사회활동 / 제4장. 의례와 신화 / 제5장. 무로마치(室町) 문화와

불교 / 제6장. 폭동(一揆)과 불교 / 별론. 변모하는 일본불교관. 이 외에 ‘꿈’ 등 7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13권 『일본Ⅲ: 민중불교의 정착』(末木文美士 編)

[편집 의도] 근세 일어난 일본불교=타락론은 메이지 시대의 신불분리론과 폐불을 설명하기 위한 산물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해 이와 같은 관념은 극복되어가고 있다. 반기독교와 사원등록제도 등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장례불교에 대한 민속학적 해명 등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근세야말로 불교가 민중화된 시대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본권은 그러한 생생한 삶의 현장의 불교를 서술하였다.

[목차] 제1장. 기독교와 불교 / 제2장. 근세국가와 불교 / 제3장. 불교와 에도(江戸)의 여러 사상 / 제4장. 교학의 진전과 불교개혁운동 / 제5장. 바쿠후(幕府)의 사사봉행직(寺社奉行職)과 모연(勸進)의 종교자 / 제6장. 장례불교의 형성 / 별론1: 불상을 통해 본 고대 일본 불교 / 별론2: 불교건축의 변천. 이 외에 ‘황벽판 대장경’ 등 7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14권 『일본Ⅳ: 근대국가와 불교』(末木文美士 編)

[편집 의도] 근대불교는 신불 분리와 폐불(廢佛)로부터 시작한다. 근대화,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사회모순 속에서 불교는 새로운 사상 형성을 위해 분주했다. 최근 다양한 연구접근 방법의 흐름 속에서 전후 근대불교의 연구가 교리적인 천착에 치우치는 바람에 간과했던, 전통교단의 실체에 대한 연구와 전통교단이 공교육에 공헌한 역할에도 관심을 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학자, 역사학자, 민속학자들의 연구 사이의 학제 간 교섭에도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본권은 이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한 근대불교의 진실한 모습을 탐구하

고 있다.

[목차] 제1장. 메이지유신과 불교 / 제2장. 근대불교의 형성과 전개 / 제3장. 불교가의 해외진출 / 제4장. 국민국가 일본의 불교 / 제5장. 전쟁과 불교 / 제6장. 종전 후 불교의 전개 / 별론1: 불교연구방법론과 불교사. 이 외에 ‘홋카이도의 불교’ 등 7편의 칼럼이 수록되어 있다.

제15권 『일본V: 현대불교의 가능성』(末木文美士 編)

[편집 의도] 최근 문명은 거대한 규모로 급속히 변화하며 지구에 전파되고 있다. 본권은 일본만을 범위에 두지 않고, 아시아 전체, 영미권의 새로운 불교 동향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그리고 과학과 불교, 교육, 복지와 불교, 젠다와 불교 등 현대불교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불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 불교는 무엇인가, 무엇을 만들 어왔는가, 그리고 미래를 향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오늘날 불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등의 실천적인 문제들을 통해 오늘날의 불교 상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대장경의 역사와 현재 / 제2장. 민속과 불교 / 제3장. 과학과 불교 / 제4장. 교육·복지와 불교 / 제5장. 사회참여와 불교 / 제6장. 현대일본불교와 젠더 / 제7장. 의료와 불교 / 제8장. 불교수행의 의미와 창조 / 제9장. 미국에 건너간 불교: 현대불교의 상징 / 제10장. 일본불교에서의 비판불교 / 제11장. 금후의 불교. 칼럼은 없음.

2 제10권 『한반도·베트남: 한자문화권으로의 확장』에 대한 리뷰

이시이코세이(石井公成) 교수의 서문을 따르면, 불교가 인도→중국→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일본 종래의 상식과 나아가 일본을 대승불교의 완성지로 보는 것은 근대 국가주의의 이념 하에서 성립된 해석이

다. 불교는 중앙아시아 제국과 한국,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제국에서 흥기하였고, 인도와 중국에서는 번성했으나 일본에는 전해지지 않은 계통의 불교, 그리고 상호 제국들의 영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종래의 상식으로는 정당하게 서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전래된 불교가 아직 널리 전파되지 않을 시기에, 베트남에는 이미 불교가 전래되어 베트남 승려가 중국 남지에 불교를 전파하고 있었다. 중국은 기존의 중국불교와 중국 남지에 전파된 불교를 융합하여 이번에는 역으로 베트남에 불교를 전파한다. 한국의 불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해진다. 즉, 고대 삼국은 중국불교를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다. 특히, 신라의 승려는 중국불교에 다대한 영향을 끼쳤다. 고려의 의천은 중국 송대 화엄교학 부흥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일본이 건당사와 함께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중국불교를 직접 수용하던 시기에도 한국의 승려와 불교문헌들이 다량으로 일본에 수입된다. 그러한 경향은 무로마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후 근대화에 성공하여, 역으로 한국과 중국불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중국→일본이라는 불교전래 루트의 상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인도나 중국이나 지금의 국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제 민족, 제 언어가 혼재하면서 제 국가가 난립하고 통합되는 것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짧은 생명으로 사라진 국가이면서도 학문이나 미술이 최고 수준에 달했던 예도 왕왕 있고, 불교 거점의 역할을 하였다. 그 여파가 이후 탄생한 국가에 살아남아 진전되는 것처럼 단선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

제1장 ‘불교수용과 민간신앙’은 미노부산 대학의 후쿠시지닌(福土慈稔) 교수가 집필했다. 특히, 삼국시대의 용 신앙과 불교의 관련에서 백

제에서의 융합은 인정해도 고구려에서는 찾기 어려우며, 신라는 불교 공인 이후에 호국불교와의 관련 속에서 융 신앙이 전개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편, 고구려의 불교에 대해서는 도교의 수입과 함께 쇠퇴한다고 보았으며, 백제불교를 계율사상과 법화신앙, 그리고 미륵신앙을 통해 특징적으로 파악하였다. 신라불교에 대해서는 신라 제왕들의 불교귀의와 불교와 화랑과의 관계 및 역할, 신라 불국토 사상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빈번한 중국 및 인도로의 삼국시대 구법승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삼국시대의 불교문화를 한 장으로 다룬 것은 본권 전체의 의도와 합치된다.

제2장 ‘통일신라시대 불교’는 도요대학 사토아츠시(佐藤厚) 강사가 집필하였다. 크게 통일신라 승려들의 사상적 활약상과 정도신앙과 선사상을 실천불교로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최연식 교수와 이시이코세이의 근년의 설을 수용하여, 견등이 일본에 의상 계통의 문헌을 처음 전했으며, 『석마하연론』이 신라 위찬이며, 『대승기신론』을 둘러싼 논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찬술되었다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고려의 순지(順之)의 사상 배경으로 이통현의 존재를 거론하는 점도 특필할 만하다.

제3장 ‘고려대장경의 배경’은 금강대학교 김천학이 집필하였다. 고려대장경의 배경을 호국불교의 전통, 4대종파의 성립과 교학의 발전, 인쇄술의 발전에 의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서술 방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려대장경의 문화사적 의의에 대해서 논하면서, 첫째는 문화적 우월감의 표출이며, 둘째는 대장경의 조판이 중국의 화엄학 부흥과 일본의 화엄 연구에 큰 역할을 했으며, 셋째는 대장경은 조선과 일본과의 대외관계의 창구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제4장 ‘조선시대 불교’는 하나조노 대학 나카지마 시로(中島志郎) 교

수가 집필하였다. 주자학의 이념으로 조선왕조를 통치하며, 도첩제 폐지, 과거제 폐지, 도성출입 금지 등으로 불교를 끝까지 억압했던 조선 시대에 왕실 여성의 불교신앙을 강조함으로써 불교가 명맥을 이어온 이유를 찾으려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우선 연산군대의 인수대비와 정현왕후를 들고 있다. 두 여인은 대장경의 인출, 불전의 언해 그리고 도첩제를 한시적으로 부활시켰다. 그리고 폐지된 승과를 부활시킨 문정왕후를 든다. 특히 15년간의 승과부활을 통해 이후 조선시대 불교를 증흥시킨 서산과 사명이 등장하고, 조선시대 선의 문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서술한다. 한편, 조선시대의 황폐해가는 사원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한 갑계와 염불계의 공과와 조선시대 대장경 및 불서간행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5장은 ‘한국근대불교 근대화와 독립의 길’은 목포대학교 최연식 교수가 집필하였다. 개항기 일본불교의 침투에 따른 근대한국국의 협력과 불교계의 각성을 원종과 임제종의 대립으로 서술하였다. 사찰령을 둘러싼 식민지 한국 승려들의 칭찬의 분위기는 사찰의 권한을 총독부가 장악하려는 사찰령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하였다고 서술한다. 한편, 권상노와 한용운, 백용성 등에 의한 불교 개혁의 중심은 승려의 근대식 교육과 잡지 간행 등을 통한 대중포교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후 좌절과 부흥이 교차되면서 조계종으로 성립해가는 과정과 일제 강점기 말의 황도불교 운동에 영합해가는 과정이 서술되었다. 해방 이후는 총림의 성립과정과 정화운동과 교단 분열, 그리고 간화선풍의 진작과 돈점 논쟁에 이르기까지의 현대 불교가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었다.

제6장 ‘한반도의 불교미술’은 무사시노 미술대학 박형국 교수가 집필하였다. 본서의 전체의 의도가 시대계열에 의한 서술이 아님을 증명하듯이, 불교전래의 초기 조형부터 불교조각, 회화, 밀교미술, 석조미

술, 범종과 사리용기로 나누어 서술하였으며, 특히 발해의 불교미술을 포함시킨 것이 주목할 만하다. 불교미술의 측면에서 발해는 고구려풍이 농후한 초기와, 당과 신라와 같은 문화를 추구했던 후기로 나누어진다. 발해 초기에는 신라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고구려풍이 농후하지만, 후기에는 신라와 당의 문화를 흡수하려고 했다. 특히 고구려풍의 불교와 강원도 오대산을 중심으로 한 사리신앙과 화엄밀교가 고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상으로 한반도 불교의 서술에 대해서 요약하였다. 서문에서 밝혔듯이 기존의 삼국사관을 벗어나려는 시도에서 전체적 구성을 의도하였는데, 각 시대 서술 방식이 왕력 중심, 사상 중심, 인물 중심, 미술품 중심 등 다양해서 중간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적어도 각 시대를 논할 때 통일된 서술의도가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제1장에서는 고구려불교나 백제불교의 초전설(初傳說) 등을 미해결의 문제로 서술하거나, 제2장의 통일신라시대에 대한 서술은 너무 인물 중심으로 단순하다면, 제3장의 고려시대에는 재조대장경 이후의 불교 전개가 빠져 있다. 제5장의 조선시대는 왕력 중심으로 서술되면서, 조선 후기 불교와 토속신앙과의 습합 등 대중신앙의 서술이 미약한 흠도 있다. 하지만, 민간신앙을 주요 테마로 서술하거나, 불교미술을 장으로 다루는 등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시대 나열식 불교 서술을 일신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외에도 아마카와 출판사에서 세계종교사총서의 출판을 위해 원고 교정 중이고, 춘추사에서는 대승불교시리즈 전10권을 출간하고 있는 등 새로운 관점에서의 불교사, 불교사상사를 간행하고 있다. 우리 불교학계도 이제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조만간 우리 나름의 불교관으로 전개된 불교사, 불교사상사가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